

큰스님 수행한담

남들이 저절로 존경해요”



100여년전 상좌, 손상좌와 함께 한 영공스님. 왼쪽부터 손상좌 지암스님, 영공스님, 법상좌 일승(응선사 주지), 손상좌 수암스님.

“스님들은 시냇바람 무서운줄 알아야 수행자라면 돈과 명예욕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스님들도 몸을 못 움직일 때까지 철저히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는 60세 이후에는 계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그날까지 조·석 예법을 빠뜨리지는 안됩니다. '스님이 공부 안하면 지옥이 3천개'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은사이신 금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 열불선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참선제일'을 많이 말하지만, 관세음보살도 계속 염(念)하다보면 화두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끊어짐 없이 열할 경우 관세음보살이 내 몸에 상주하고 있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로 화현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열불선은 자기 가 부처임을 바로 깨닫는 일이고 자기 속에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나 열불이 선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불을 열심히 하다보면 나로 인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비의 열파(念波)'가 자신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취미와 특기가 다르듯이 자신에게 맞는 수행방편을 꾸준히 밀고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고 힘이 드는 수행법을 택할 경우 오히려 중독에서 좌절하거나 병이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느 수행법이 가장 수습하다'는 말은 수행하는 당사자에게는 참고가 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는 인과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도 인과에 의한 것입니다. 해태심과 게으름, 신심이 나는 것도 인과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를 잘 믿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 중생과 일반 재가불자들에게는 열불선이 참 좋은 수행법입니다. 사실 참선은 일반 신도들이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이 몸이 누구인가'를 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여의주(如意珠) 보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앉으나 서나 누우나 망상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자꾸 부르다 보면 저절로 열불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 속에 인이 배겨 화두가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죽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만 열불삼매를 익힌 수행자는 생사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안돼' 하고 좌심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밀고 나가면 쌓이고 쌓인 습과 업이 소멸되고 심명(心明)의 단계를 밟습니다. 일초도 끊어지지 않게 부르고 또 부르면 성불의 길이 멀지 않습니다. 원효스님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방방곡곡의 남녀노소에게 가르친 이유가 이것입니다. 불교는 신라시대처럼 생활불교가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불자가 없으면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생활불교의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열불하는 삶이 가정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108배를 하던지 사경을 하던지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방편을 찾아 부지런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生死大事? 어역(鴨)!! 9·9는 81이니라 (九九歸八十一)는 임종계를 내린 후 열반하셨죠. 당시 남자들은 다들 수행이 높고 발심도 대단했어요. 그때 원주 일을 말해보니 한 스님은 내가 서울로 출타중에 좌달입 망을 했어요. 미리 입학할 것을 알고 내게 '별지 못하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화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열반한 거예요. 같이 수행할 때는 공양주 일을 한다고 무심히 생각했는데 남모르게 높은 경지에 있었

스님들은 시냇바람 무서운 줄 잘 알아야 합니다. 수행자라면 돈과 명예욕을 철저히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스님들은 보시금과 공양금이 흔해 스승이 해픈 것 같은데, 이래서는 큰일입니다. 그제 그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갈아야 할 빛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닦아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갈아야 할 집인 것입니다. 지성을 다해 불공을 드려주고 받는 공양물일지라도 내 것으로 생각해서 안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신도들의 불공을 울

“불보살 명호 불러 자비심 넘치면 열불선” “나는 안돼” 좌절말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던 겁니다. '공부는 남모르게 해야 깊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천축사 불사가 이만 하면 됐구나 싶을 때 다시 회암사 주지로 돌아왔습니다. 2년간 주지 소임을 맡은 후에는 서울 서대문에 있던 응선사에서 당시의 대강백이자 <불교시보>를 창간했던 대은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노스님은 정에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경전 강독과 후진 양성에만 힘을 쏟으셨어요. 평생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서 달력을 쫓겨서 글을 쓰고, 내외가 많아 못 할 때까지 기워 입으셨어요. 무소유의 정신을 늘 강조하셨어 평생 돈을 안 취하시고, 시주물도 직접 만지지 않으셨죠. 나도 그 정신을 배워 물질에 걸림 없이 사내 마음도 한결 자유롭고 오히려 풍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행복과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의 안락함을 위해 불공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보시물이라도 철저히 인과를 생각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신도들에게도 하심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금강경>의 '아상(我相)'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리는 공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도들에게도 무릎을 꿇은 채 절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남에게 화를 낼 일도 없고 아담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를 낮추면 제자들과 신도들도 저절로 존경심을 갖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하는 법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는 법문이 '참 법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관세음보살과 관음행자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의 32응신(應身)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이라는 하나의 명호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세계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관(觀)하다보면 마음이 밝아짐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가능한 잠을 줄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앉은 채로 열불선에 매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참선으로 이르게 되는 경전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깨달음의 방편이 다를 뿐 그 목적과 종착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불은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불을 통해 자비심 넘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과 주위 사람, 영가나 모든 동·식물, 사물



배 금 자

<下> <번호사>

미국에서 나는 공양준비와 부역일것이, 화장실 청소 등을 열심히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은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즉 하심하는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3월 귀국 후, 나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참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3년 가까이 보낸 미국 유학생활이 내겐 무척 긴 기간이라고 느꼈다. 사실 나는 변호사일을 재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걱정을 은근히 했다. 실제 동료 변호사 한 명도 미국에서 3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고객이 없어서 고전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참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런 걱정은 곧 사라졌다. 내가 아직 업무재개 광고도 내지 않고, 인사장도 보내지 못하고 업무재개

“참나”에 맡기고 놓으니 에너지 생겨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항상 명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아는 많은 고객들이 상담을 오고 사건을 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의 고객들이 느끼는 시간 개념은 3개월 정도 잠깐 비운 것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시공을 초월하는 참나가 배출하는 힘을 다시 한 번 실감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무주상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철저히 알게 되었다. 나라는 이 몸통 아리와 현재의식은 철저히 참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눈만 뜨면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의 삶도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면서, 하루 하루를 정진의 연속



하고, 진심으로 회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하였다.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여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차원을 더 빨리 넘어주기 위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때로는 경계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신심이 조금만 약해지거나 절실한 관(觀)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계에 휘둘러 중도 포기하거나 한참 미끄러지는 것을 체험했다. 지금은 경계에 약간 빨려 들어간 하지만, 재빨리 알아채고는 참나에게 맡기고 놓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상을 죽이고 하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내어준 아상을 철저히 죽이기 위한 경계가 많이 찾아온다. 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하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이 언제나 나를 채찍질한다. 내 남편도 우리 아들도 불법에 귀의하여 참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참신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참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던져버리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질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라는 나옹선사 계승을 좋아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미국에 가기 전에 여주 신륵사에서 보았다. 그 당시 그 진미를 잘 몰랐는데, 마음공부가 익어 가면서 진미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형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친원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열공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민반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혜영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혜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판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혜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법륜 합장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혜정님 올림